

맑스 『자본: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1권 독일어판 번역 리뷰

황 선 길*

요약

이 글은 맑스 『자본』 1권의 번역 후기이며, 이 글에서는 첫째, 『자본』 1권의 번역에 있어서 몇 가지 개념에 새로운 표현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둘째, 기존의 독일어 번역본인 강신준 교수의 독일어 번역본을 문제점에 따라 분류하여 지적하고 있다.

주제분류 : B030106

핵심 주제어 : 마르크스, 자본, 『자본』 1권의 번역방식, 강신준

I. 서 론

오늘날 맑스와 『자본』에 대한 관심은 다시 살아나는 듯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전세계적인 불평등의 심화라는 물적 조건이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맑스의 『자본』에 대한 대중들의 지적 욕구는 계속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는 이전의 『자본』 번역이 맑스의 이론과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일정 정도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번역을 넘어서 이론적 논쟁이 필요한 대목이지만, 일단 논쟁보다 내가 생각하는 『자본』의 온전한 번역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아직은 1권에 불과하지만, 올해 『자본』 1권을 두 책으로 펴냈다. 대중들의 관심과 생산적인 논쟁이 이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시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인천대학교 글로벌법정경제대학 경제학과 겸임교수, e-mail: serai82@hanmail.net

나는 이 논문을 통해 이전의 『자본』 번역에서 이루어진 방식과 다른 새로운, 맑스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는 이를 구체적인 번역의 문제를 지적하며 제시할 것이다. 내가 이전의 『자본』 번역이라고 한 것은 강신준이 번역한 『자본』으로 2010년 1월 25일 출간된 제1판 제3쇄를 의미한다. 김수행의 번역도 필요한 경우 언급하겠지만, 일단 번역 대본이 영어본이고 (필자에 따라서는 여러 대본을 참고하였으니 ‘김수행판’이라고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중역이기 때문에 나와 같은 『자본』 대본을 사용한 강신준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대본으로 삼은 『자본』은 구동독의 “맑스-레닌주의 연구소(Institute für Marxismus-Leninismus)”에서 편집한 ‘맑스-엔겔스¹⁾ 전집(Karl Marx-Friedrich Engels Werke, MEW)’의 23권 『Das Kapital,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를 번역한 것이다. 이 판은 엔겔스가 맑스가 세상을 뜨기 전에 수정할 것을 지적하고 남겨 둔 프랑스어판과 독일어판을 반영한 것이기에 그 완벽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판과 4판을 편집하면서 엔겔스가 서문에서 밝힌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다).²⁾ 맑스가 영어를 독일어로 번역한 인용문들은 영어와 비교하는 작업을 거쳤다. 그러나 맑스의 번역방식을 더 우선시했는데, 맑스가 의도적으로 헤겔의 표현방식을 따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편집자가 추가한 후주는 『자본』 1권을 주관적으로 해석해 맑스의 정치경제이론 자체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까닭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만 요약 번역했다.

우선 도량형과 화폐단위는 엔겔스가 『3판에 부쳐』에서 밝히고 있듯이, 당시 잉글랜드 도량형이 세계시장에서 지배적이었고, 실례를 거의 잉글랜드의 산업 상황에서 가져와야 했기 때문에(맑스, 2019a: 40) 맑스가 사용한 잉글랜드의 도량형과 화폐단위를 그대로 따랐다.

둘째, 맑스가 주석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³⁾ 잉글랜드, 그레이트브리

-
- 1) 우선 한국 학계에서 Marx와 Engels를 마르크스와 엔겔스라는 일본식으로 표기하는 대신에, ‘맑스’와 ‘엔겔스’라는 독일어 발음으로 사용하길 제안한다.
 - 2) 박승호 교수(박승호, 2019)는 프랑스어판과 독일어판을 비교하면서, 독일어판과 내용이 다른 프랑스어판 부분을 한글판 번역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일단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난 후 필요한 부분은 추후, 반영할 계획이다.
 - 3) “In England ist immer Wales eingeschlossen, in Großbritannien England, Wales und Schottland, im Vereinigten Königreich jene drei Länder und Irland”(Marx, 1984: 683, 주석 107).

튼 그리고 브리튼(영국)은 통계상으로는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까닭에 엄격하게 구분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미국”으로 번역된 부분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면 초판 서문에서 맑스가 “북아메리카 연방”(Die Vereinigten Staaten von Nordamerika)의 부통령 “웨이드”의 어록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를 “미국”으로 번역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오류이다. “웨이드”라는 이름을 가진 미국의 부통령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치경제학을 넘어 철학, 역사, 문학 그리고 자연과학에 능통한 맑스의 인용문과 인용된 인물에 관해 주석을 달아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예를 들어 맑스가 아무런 설명 없이 인용한 레쥔, 멘델스존 그리고 스피노자의 관계를 그와 관련된 역사적 논쟁을 밝혀 부연 설명하였으며(맑스, 2019a: 33 주석), 인용된 인물에 대한 이해 없이는 문맥을 파악하기 힘든 부분, 예를 들어 비르트(맑스, 2019a: 123)에 대한 주석을 달아 이해를 도왔다.

본 논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이뤄졌는데 제Ⅱ장과 제Ⅲ장이 핵심이다. 제Ⅰ장 서론 다음에 본문의 전반부 격인 제Ⅱ장 “몇 가지 개념에 대한 새로운 표현방식”에서는 번역방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것이다. 쉬운 표현으로 번역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착된 표현 가령, 지각할 수 없는 이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형이상학이라는 대중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들을 맑스의 논지를 해치지 않으며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같은 문제들을 주로 다뤘다. 다음으로 제Ⅲ장 “기존 독일어판과의 비교”에서는 강신준판에서 보이는 번역상 오류, 번역되지 않은 문장들, 문법적으로 오류인 문장 등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새롭게 제시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힐 것이다. 마지막 제Ⅳ장 결론에서는 논문을 간략히 요약하겠다.

Ⅱ. 몇 가지 개념에 대한 새로운 표현방식

맑스가 프랑스어판 서문에서 독자들에게 밝히고 있듯이, 『자본』의 처음 몇 장을 읽어 나가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해하기 까다로운 개념을 문맥에 맞게 최대한 풀어서 번역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번역방식에 주안점을 두었다.

2-(1) ‘가치대상성’인가 ‘가치의 성질’인가?

첫째, 맑스가 사용하는 헤겔의 철학 용어를 문맥에 맞게 풀어서 번역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Wertgegenständlichkeit der Waren”은 “상품의 물질화된 가치의 성질” 또는 “상품의 가치성”, “Gegenständlichkeit”는 그 문맥에 따라 “성질” 또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대상” 등으로 번역하였다. 그리고 “vergegenständlichen”은 문맥에 따라 “물질화” 또는 “구체화”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그리 번역했다. 이런 까닭에 자본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인 『상품과 화폐』 부분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다고 생각한다. 어떤 이유로 이러한 번역방식을 따랐는지를 더 상세하게 설명하겠다.

맑스는 『자본』 1권 2판 서문에서 “나는 이 위대한 사상가(헤겔)의 제자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가치론에 관한 장의 이곳저곳에서 헤겔 특유의 표현방식을 쓰면서까지 아양을 떨었다”(맑스, 2019a: 33-34)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헤겔 특유의 표현방식은 헤겔이 욕망에서 이성으로의 변증법적 운동을 서술하는 데 사용한 변증법적 용어를 말한다.

헤겔의 변증법에서 인간이라는 나/주체(Ich)는 대상(Gegenstand), 즉 자연이나 타인과 관계한다. 우선 인간은 욕망(Bedürfnis)을 가지고 대상을 바라보는데, 인간은 천연상태의 대상을 가지고는 욕망을 모두 충족할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은 천연상태인 대상의 자립성을 부정하고 파괴하여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도록 변형해 새로운 대상을 만들어 내야 한다. 맑스는 『자본』 1권에서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이 지배하는”(맑스, 2019a: 59)이라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이 대상은 노동을 통해 창조적으로 변형된 “상품”이다. 이 가정하에 맑스는 상품을 분석하기 시작한다. 우선 상품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유용성, 즉 사용가치를 가져야 하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사용가치를 가진 대상은 타인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교환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상품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가지고 있는 물건이 된다. 교환가치는 서로 다른 사용가치가 교환되는 비율인 양적 관계로 나타나기 때문에, 교환가치에서는 상품들의 질적인 차이인 사용가치는 부정된다. 사용가치가 무시된다면, 상품체에는 노동생산물이라는 특성만 남게 된다. 사용가치가 무시된 노동생산물에는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아무런 물적 성

질도 남지 않는다. 따라서 특정한 유용성을 만든 모든 구체적 노동형태도 사라지게 된다. 이제 노동생산물은 더이상 서로 구별되지 않고, 모두 동일한 인간노동력의 단순한 응고물일 뿐이다. 이 모든 물건은 단지 그것의 생산에 인간노동력이 소모되었고, 인간노동이 축적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런 공통된 사회적 실체의 결정체로서 물건은 상품가치이다(맑스, 2019a: 59-64). 말하자면, 상품의 사용가치는 그 상품의 유용성이다. 그러므로 매우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이에 반해 교환가치는 상품의 구체적인 유용성을 전부 제거하고 상품의 교환비율을 기준으로 다른 상품과 비교해야 하기에 다양성이 아니라 공통적인 것을 도출해내야 비로소 이해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물건, (교환가치의 측면에서 볼 때), 어떤 상품의 가치는 다른 상품들과 비교 가능한 어떤 공통된 것, 인간노동의 축적일 것이다, 여기서 사회적 실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맑스는 왜 쓰임새가 다양한 상품이 비교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 문제를 이해한 것이다. 해명과정 중 맑스가 강조한 것은 구체적 유용노동이 아니라 교환가치를 생산해내는 추상노동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 인상적이다.

이러한 변증법적 방식으로 사용가치, 교환가치 그리고 가치의 관계를 설명한 후 맑스는 등가형태로부터 화폐형태로의 가치형태의 변화과정을 다룬다. 『가치형태와 또는 교환가치』라는 제목의 『자본』 1장 3절 맨 첫 부분에 맑스는 상품은 현물형태와 가치형태라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논한 후 다음과 같이 계속한다.

(1) “Die Wertgegenständlichkeit der Waren unterscheidet sich dadurch von der Wittib Hurtig, daß man nicht weiß, wo sie zu haben ist. Im geraden Gegenteil zur sinnlich groben Gegenständlichkeit der Warenkörper geht kein Atom Naturstoff in ihrer Wertgegenständlichkeit ein”(Marx, 1984: 62)⁴⁾

4) 펄컨판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The objectivity of commodities as values differs from Dame Quickly in the sense that ‘a man knows not where to have it’. Not an atom of matter enters into the objectivity of commodities as values; in this it is the direct opposite of the coarsely sensuous objectivity of commodities as physical objects”. 김수행 판은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상품의 가치가 객관적으로 실재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그것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과부 키클리와는 구별된

(1)-① “상품의 물질화된 가치의 성질은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포착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퀴클리 부인과는 다르다. 촉감이 거친 상품체라는 물건의 성질과는 정반대로 가치로서의 상품에는 티끌만큼의 천연소재도 들어 있지 않다”(맑스, 2019a: 78).

(1)-① 를 상세하게 분석해보자. 가)라는 문장에는 상품을 만든 주체인 모두 동일한 인간노동이 생략되어 있다. 따라서 상품을 만드는 주체로서 추상적 노동이 문장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추상적 노동은 천연소재를 대상화하여 알아차릴 수 있는 구체적인 상품체, 즉 물건을 만들 지만(vergegenständlichen - 이 문장 역시 생략),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Wert)의 성질(Gegenständlichkeit - 헤겔의 변증법에서 운동을 멈춘 성질이나 형태를 의미)은 퀴클리 부인처럼 구체적인 성격을 가진 인물과는 다르게 전혀 포착될 수 없다. 맑스는 일반적으로 성질 또는 형태의 의미로 사용되는 “Beschaffenheit”를 헤겔의 변증법적 표현방식인 “Gegenständlichkeit”로 표기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1)-① 은 다음과 같이 고쳐 쓸 수 있을 것이다.

(1)-② “동일하고 추상적인 인간노동력은 천연소재를 사용하여 지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건인 상품을 만든다. 그런데 그 가치의 성질은 구체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퀴클리 부인⁵⁾과는 다르게 전혀 포착될 수 없다. 사용가치를 만드는 구체적인 노동형태를 통해 만들어진 상품체라는 물건의 성질과는 정반대로 가치로서의 상품에는 티끌만큼의 천연소재도 들어 있지 않다”.

이 문장을 위와 같이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필자는 앞에서 요약한 맑스의 사용가치, 교환가치 그리고 가치에서 출발했으며, 바로 연결된 문장과의 연관성을 고려했다. 즉,

다. [세익스피어, 『헨리 4세』, 제1부, 제3막, 제3장의 대사 일부를 살짝 바꾼 표현] 상품 가치의 실재에는 상품체의 감각적이고 거친 객관적 실재와는 정반대로 단 한 분자의 물질도 들어 있지 않다(마르크스, 2015: 59). 이 번역은 올바르다. 다만 펑귄판(Marx, 1990)은 헤겔의 표현방식으로서의 “Gegenständlichkeit”를 “objectivity”로 번역한 것이 올바른지에 대한 토론은 필요하다.

5) 맑스가 왜 이 문장에서 의도적으로 퀴클리 부인을 등장시켰는가는 필자가 달아 놓은 주석을 보면 알 수 있다. “물고기도 네발 달린 짐승은 아니어도 남자로서 그를 무엇으로 봐야 할지 모른다”는 험담에 퀴클리 부인이 “뭘, 몰라 당신도 알고 모든 남자들이 다 안다고” 대꾸하면서 말싸움하는 장면이 그것이다.

(2) “Man mag daher eine einzelne Ware drehen und wenden, wie man will, sie bleibt unfaßbar als Wertding. Erinnern wir uns jedoch, daß die Waren nur Wertgegenständlichkeit besitzen, sofern sie Ausdrücke derselben gesellschaftlichen Einheit, menschlicher Arbeit, sind, daß ihre Wertgegenständlichkeit also rein gesellschaftlich ist, so versteht sich auch von selbst, daß sie nur im gesellschaftlichen Verhältnis von Ware zu Ware erscheinen kann. Wir gingen in der Tat vom Tauschwert oder Austauschverhältnis der Waren aus, um ihrem darin versteckten Wert auf die Spur zu kommen”(Marx, 1984: 62).

(2)-① “이런 까닭에 상품을 하나씩 아무리 돌리고 뒤집어도, 그것을 가치를 지닌 물건(Wertding)로서 포착할 수 없다. 동일한 사회적 단위인 인간노동의 표현일 경우에만 상품은 가치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사실, 따라서 상품의 가치가 순전히 사회적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가치로서의 상품은 오직 상품과 상품 사이의 사회적 관계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분명해진다. 실제로 우리는 상품의 교환가치 또는 교환관계에서 시작해 상품 속에 은폐된 가치의 실마리를 찾아왔다”(맑스, 2019a: 78-79).

Die Wertgegenständlichkeit der Waren을 낱말 그대로 번역하면, 일본식 한자인 “상품의 가치 대상성”으로 표현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일반 대중이 “가치 대상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필자의 번역은 『자본』을 읽는 대중에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사용가치, 교환가치 그리고 가치의 개념의 변증법적 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문맥에 맞게 풀어쓴 것에 불과하다. 유동민 교수의 문제 제기(유동민, 2019: 124-128)에서 필자는 학술성보다는 가독성에, 즉 문맥이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더 우선순위를 두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2-(2) ‘이념’보다는 ‘사유과정’이 맑스에 충실한 번역이다

또 다른 철학적 개념인 ‘Idee’는 ‘이념’으로 ‘das Ideelle’는 문맥에 맞게

‘의식한 내용’으로 번역했다. 예를 들면,

2-(2)-① “Für Hegel ist der Denkprozeß, den er sogar unter dem Namen **Idee** in ein selbständiges Subjekt verwandelt, der Demiurg des Wirklichen, das nur **seine** äußere **Erscheinung** bildet. Bei mir ist umgekehrt **das Ideelle** nichts andres als das im Menschenkopf umgesetzten und übersetzte Materielle”(Marx, 1984: 27).

2-(2)-① 1) “헤겔에게는 이념이라는 이름하에 자립적 주체로까지 변화시킨 사유과정이 현실 세계의 창시자이다. 즉 현실 세계는 **이 사유과정**의 겉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나에게 의식한 내용은 인간의 두뇌에서 변화되고 변형된 물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맑스, 2019a: 33).

이 부분은 김수행판에는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 있다.

2-(2)-①-2) “헤겔에게는 그가 이념이라는 명칭 아래 자립적인 주체로까지 전환시키고 있는 사유과정이 현실 세계의 창시자이고, 현실 세계는 **이념**의 외부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나에게는, 반대로, 관념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이 인간의 두뇌에 반영되어 생각의 형태로 변형된 것이 지나지 않는다”(마르크스, 2015: 19).

2-(2)-①-3) “For Hegel, the process of thinking, which he even transforms into an independent subject, under the name of ‘the idea’, is a creator of the real world, and the real world is only the external appearance of **the idea**. With me the reverse is true: the ideal is nothing but the material world reflected in the mind of man, and translated into forms of thought”(Marx, 1990: 102).

“The real world is only the external appearance of **the idea**”의 영어번역 자체에 오류가 발견된다. 문법적으로 보면, 2-(2)-①-3)의 **The idea**는 다)에서의 “Idee”라는 여성명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Denkprozeß”라는 남성명사, 즉 “the process of thinking”을 받는다. 그리고 이는 내용상으로도 올바르다.

2-(3) ‘형이상학’ 대신 ‘지각할 수 없는’이 현대 한국인에게 더 익숙한 표현이다

둘째, 일반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을 우리말로 풀어 표기하였다. 예를 들면, 보통 “형이상학(形而上學)적”으로 번역되는 형용사 “metaphysisch”는 “지각할 수 없는”으로, “physisch”는 그 문맥에 따라 “지각할 수 있는” 또는 “물리적”으로 번역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번역되는 형용사 “theologisch”는 “신의 계시를 전하는 성직자”로 풀어써 내용의 이해를 도왔다. 예를 들면 “상품의 물신성”에 있는 문장을 아래와 같이 번역했다.

2-3-① “Eine Ware scheint auf den ersten Blick ein selbstverständliches, triviales Ding. Ihre Analyse ergibt, daß sie ein sehr vertracktes Ding ist, voll metaphysischer Spitzfindigkeit und theologischer Mucken”(Marx, 1984: 85).

2-3-② “상품은 처음 본 순간에는 뻔히 알려진 평범한 물건처럼 보인다. 그러나 상품을 분석해보면, 그것은 인간이 지각할 수 없는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과 신의 계시를 전하는 성직자처럼 변덕으로 가득 찬 매우 이상하고 묘한 물건이라는 것이 밝혀진다”(맑스, 2019a: 115).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예는 다음과 같다.

2-3-③ “Aber beim Sehen wird wirklich Licht von einem Ding, dem äußeren Gegenstand, auf ein anderes Ding, das Auge, geworfen. Es ist ein physisches Verhältnis zwischen physischen Dingen. Dagegen hat die Warenform und das Wertverhältnis der Arbeitsprodukte, worin sie sich darstellt, mit ihrer physischen Natur und den daraus entspringlichen dinglichen Beziehungen absolut nichts zu schaffen”(Marx, 1984: 86).

2-3-②-1) “그러나 무엇을 보는 경우에는, 실제로 빛이 어떤 물건에서, 즉 외적 대상에서 다른 물체인 눈으로 투사된다. 이는 지각할 수 있는 물건들 간의 물리적 관계이다. 이에 반해 상품형태와 이 상품형태가 나타내고

있는 노동생산물의 가치관계는 노동생산물의 물리적 성질이나 그로부터 발생하는 물적 관계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맑스, 2019a: 117).

2-3-②-2) “In the act of seeing, of course, light is really transmitted from one thing, the external object, to another thing, the eye. It is a physical relation between physical things. As against this, the commodityform, and the value-relation of the products of labour within which it appears, have absolutely no connection with the physical nature of the commodity and the material [dinglich] relations arising out of this”(Marx, 1990: 165).

2-3-②-3) “물론 우리가 사물을 볼 때 광선이 현실적으로 한 개의 물건 [외부의 대상] 에서 다른 하나의 물건[눈]으로 던져진다. 이것은 **물리적인** 물건들 사이의 하나의 **물리적** 관계다. 그러나 이것은 상품들의 경우와는 다르다. 노동생산물이 상품으로 존재하는 것과 노동생산물들 사이의 가치관계[이것이 노동생산물에 상품이라는 도장을 찍어준다]는 노동생산물의 물리적인 성질이나 그로부터 생기는 물적 관계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마르크스, 2015a: 93-94).

2-3-②-1)과 2-3-②-2)를 비교해보면 파악되듯이, ‘물리적인 물건들 사이의 하나의 물리적 관계’보다는 ‘지각할 수 있는 물건들간의 물리적 관계’이 다가 문맥에 더 적합하다.

2-(4) ‘돈벌이’, ‘살림살이’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인용한 맑스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한다

이러한 번역방식은 맑스가 인용한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도 적용했다. 예를 들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Chrematistik”은 “돈벌이 기술”로 “Ökonomik”은 “살림살이”로 번역했다. 맑스는 4장 1절 “자본의 일반공식” 부분에서,

⟨“구매를 위한 판매, 즉 단순한 상품유통은 유통의 외부에 있는 최종목적, 곧 사용가치의 취득, 욕망의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와 반대

로 자본으로서의 화폐의 유통은 그 자체가 목적인데, 가치의 증식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운동 내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의 운동은 끝이 없다”(맑스, 2019a: 223).>>

라고 쓰고, 문장의 끝부분에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다음과 같은 주석을 단다.

“진정한 부는 이러한 사용가치로 이루어진다. 편한 삶에 충분할 정도의 재산에는 한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당연히 돈벌이 기술이라고 부르는 두 번째 종류의 살림 사는 기술이 있다. 이것은 돈벌이 기술이기 때문에 부와 재산에는 그 한계가 없기 때문이다”(맑스, 2019a: 223, 주석 155).

2-(5) ‘생산방식’이란 쉬운 단어를 두고 ‘생산양식’을 고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필자가 번역에서 고민한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Die kapitalistische Produktionsweis”이다.

기존의 번역서에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으로 통일되어 번역된 “Die kapitalistische Produktionsweis”를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으로 번역하였다. 『자본』 1권에서 맑스는 상부구조에 영향을 주고 있는 자본주의의 경제적 토대인 생산방식의 변화과정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자본』 1권의 전개과정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맑스는 “상품과 화폐”를 다룬 후, 대부분의 지면을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노동과정을 이전의 생산방식과 구분하면서 그 진행과 사회적 확산 과정을 작업장 차원에서의 생산방식의 변혁을 토대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맑스에게 중요한 것은 작업장 차원의 분업과 이의 사회적 차원으로의 일반화, 단순한 기계가 아닌 거대한 기계장치 도입으로 인한 급속한 생산력의 향상, 즉 생산방식의 혁명적 변화가 그에 부합하는 사회적 차원의 변화를 가져와 자본과 노동 간의 관계와 자본 자체 간의 관계 등에 영향을 주는가이다.

2-(6) ‘노동생산력’인가 ‘노동생산성’인가?

그리고 유동민 교수가 학술성의 의미에서 문제를 제기한 “Produktivkraft der Arbeit”의 번역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유동민 교수는 프로그래스판에서는 “productiveness” 그리고 팽귄판에서는 “productivity”로 번역된 독일어 “Produktivkraft”의 번역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그런 다음 여러 판의 면밀한 대조와 가장 정확한 번역의 확정이 필요하며 이것이 바로 학술성의 영역이라고 밝히고 있다(유동민, 2019: 123-124와 유동민, 2016: 27-28 참조).

맑스는 『자본』에서 영어 “Productivity”를 그대로 “Produktivität”로 번역하거나 “Produktivkraft”라는 표현으로도 번역하는 등 이중적으로 사용했다.⁶⁾ 그런데 맑스가 의미하는 바가 똑같기에, 필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가지 개념으로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리고 이 개념을 인류사의 발전에서 생산력을 중시한 맑스 정치경제학의 특유한 표현방식으로 파악했다. 『자본』 1권에서 맑스는 노동생산력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노동자들의 평균적인 숙련 수준, 과학과 그 기술적 응용 가능성의 발전수준, 생산과정의 사회적 결합 정도, 생산수단의 규모와 능률 그리고 갖가지 자연조건 등이 중요한 요인들이다”라고 특징짓는다. 따라서 맑스는 노동생산력에서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을 동시에 바라본다. 현대 경제학에서 “생산성”은 필요한 생산요소들과 생산된 상품이나 재화의 양적 비율이나 수치를 나타내기에, 생산력을 생산관계와의 변증법적 관계로 파악하는 맑스 정치경제학에서는 양과 질을 동시에 나타내는 생산력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번역은 또한 맑스가 “Produktivkraft”만을 사용한 그의 초기저작인 『독일 이데올로기』, 『코뮌주의자 선언』 그리고 『철학의 빈곤』 등과 연속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1845-46년에 엥겔스와 공동으로 집필한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맑스는 “모든 새로운 생산력은 그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생산력의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닌 한, 새로운 분업이 만들어

6) 김수행판과 강신준판은 맑스가 이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Produktivkraft der Arbeit”는 “노동생산력”으로, “Produktivität der Arbeit”는 “노동생산성”으로 다르게 번역하였다.

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분업의 각 단계, 물질, 노동 도구 그리고 노동생산물과 관련된 개인들 상호 간의 관계가 생산 관계를 규정한다”(Marx & Engels, 1986: 3, 22)라고 쓰고 있다.⁷⁾ 따라서 맑스가 그의 정치경제이론에서 사용한 개념을 현대에 맞게 계승하더라도, 맑스가 다른 이론들과 구별하여 사용한 맑스 특유의 개념인 “생산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옳은 듯하다.⁸⁾

2-(7) 몇 가지 개념들에 대한 번역방식을 추가하면 다음과 같다.

맑스가 직접 쓴 「2판 서문」에 나오는 “Kameralwissenschaft”는 그 내용상 “중상주의 정치경제학”으로 번역하는 것이 올바르다. 맑스는 당시 독일에서 재정을 관리하던 관료들이 배워야 할 지식 덩어리로 프랑스에서 빌려온 자료를 섞어 만든 도그마 모음집을 말하고 있다. “Stücklohn”은 “성과급 임금”이 아니라 “개수임금”으로 번역했다. “Maschine”는 “기계”, “Maschinerie”는 여러 가지 기계들의 결합체를 의미하는 “기계장치”로 번역했다. 그 이유는 맑스가 단순한 기계와 기계장치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사회적”으로 번역되는 “gesellschaftlich”는 그 내용상으로, 특히 작업장 차원의 협업과 분업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집단적”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그리 번역했다. 형용사 “Modern”은 “근대적”으로 보통 번역하고 있지만, 기계의 발달을 나타내는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 “구식” 기계를 대체하는 “신식”으로 옮겨 그 의미를 분명히 했다. 여성을 비하하는 언어는 생략하거나 순화하여 표현하였다. 이름 앞에 붙은 과부는 생략했으며, “jungfräuliche Boden”은 “처녀지”가 아니라 “천연지”로, 행실이 좋지 못한 여자를 나타내는 “Frauenzimmer”는 단순히 “여성”으로 번역했다.

『기계장치에 의해 쫓겨난 노동자에 관한 보상이론』 부분에서 맑스가 ‘해고되어 대기하고 있다’가 역시 대기하고 있는 자본에 의해 다시 고용된다는

7) 최근 이병창의 완역으로 출간된 『독일 이데올로기』(먼빛으로, 2019)도 “생산력”(51)으로 번역했다.

8) 따라서 이 번역방식을 둘러싸고 벌어진 김공희(2010)와 강신준의 논쟁은 하나의 단어인 “생산력”으로 통일하여 번역하는 것이 옳은 듯하다.

부르주아 이론가들을 비판하기 위해 사용한 “freisetzen”이라는 단어를 “해방(befreien)”시킨다고 번역된 부분은 앞뒤 내용을 이해하는 데 오해를 줄 수 있어 문맥과 내용에 맞게 바로 잡았다.

Ⅲ. 기존 독일어판과의 비교

앞에서 밝힌 것처럼, 팽귄판(Marx, 1990)의 번역본인 김수행판(마르크스, 2015a)은 황선길판(맑스, 2019a)과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마르크스-엥겔스 전집 23권 Marx, 1984와 기존의 독일어 번역본인 강신준판(마르크스, 2010a)의 번역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겠다.

3-(1) 잘못된 번역어 선택의 경우

우선 번역 전체에서의 강신준판은 “정치경제학”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은지 “경제학”이 옳은지 논쟁이 되었던 “Politische Ökonomie”를 의도적으로 “경제학”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런데 당대의 고전학과 이론가들은 “경제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1890년 출간된 알프레드 마샬의 저서 『Principal of Economics』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political”이 생략되고 “경제학”이라는 개념이 정착한다. 따라서 경제학사 측면에서도 마샬 이전의 “Politische Ökonomie”는 “정치경제학”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바르다.⁹⁾ 그리고 번역 전체에서 강신준판은 “Bourgeoisie”와 “Proletariat”를 “부르주아들”과 “프롤레타리아들”이라는 복수로 번역했지만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올바른 번역이다. 그리고 “Verausgabung der menschlichen Arbeitskraft”를 “인간노동력의 지출”로 번역했는데, “인간노동력의 소모”로 번역하는 것이 옳바르다. 맑스가 『자본』 1권에서 자주 사용하는 “Verausgabung”은 노동자가 현금화된 가변자본(임금)을 생활수단을 구매하기 위해 지출(ausgeben)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생산과정에서 잉

9) 이 번역방식에 대한 논쟁은 김공희(2010)과 강신준(2011)을 참조하라.

여가치를 만들기 위해 노동력을 전력을 다해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Dasein”을 “현존재”로 번역한 것도 문제이다. 맑스가 사용하는 “Dasein”은 문맥상 “실물”을 말할 뿐이다. 그리고 “현존재”로 번역하면 하이데거의 철학적 개념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3-(2) 사소한 번역상의 부주의가 맑스 주장의 흐름을 오해하게 만든 경우

이하에서는 책 전체를 이해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번역과 오역을 나열하겠다.

3-(2)-①

“『자본』에 대한 이해가 독일 노동자계급 사이에서 급속하게 확산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내 작업에 대한 최고의 보상이다”(마르크스, 2010a 51). 이 번역은 “자본이 독일 노동자계급의 광범위한 층에서 인정받게 된 것은 나의 작업에 대한 최고의 보상이다”(맑스, 2019a: 22)가 올바르다. 별다른 오역이 아닌 것 같지만, 인정받게 된 것과 단순히 확산되어가고 있다는 것의 의미는 전혀 다르다.

3-(2)-②

“Übergesetzt”을 “번역된”이라고 번역된 문장, 즉 “그러나 거꾸로 나에게서 관념적인 것(Ideelle)은 단지 인간의 머릿속에서 전환되고 번역된 물질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강신준판; 60)는 “이와 반대로 나에게 의식한 내용(das Ideelle)은 인간의 두뇌에서 변화되고 변형된 물적인 것에 불과하다”(맑스, 2019a: 33)가 올바르다.

3-(2)-③

“weshalb Marx, im Einklang mit dem Nachwort zur zweiten Ausgabe, nur ganz ausnahmsweis deutsche Ökonomen anzuführen in den Fall kommt”(Marx, 1984: 35)라는 문장을 “왜 마르크스가 거의 전적으로 독일의 경제학자들만 인용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마르크스, 2010a: 69)라는 번역은 심각한 오역이다. “ausnahmeweise”는 “예외적으로”라는 뜻으로 “왜 맑스가 예외적으로만 독일의 경제학자를 인용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맑스, 2019a: 41)가 올바른 번역이다. 강신준판(마르크스, 2010a)에 따르면 맑스가 『자본』 1권에서 자주 인용한 스미스, 리카도, 밀, 유어 등의 이론가 모두는 독일사람이 된다.

3-(2)-④

엔겔스가 집필한 『영어판 서문』에 나오는 문장인, “그러나 이 제1권은 상당부분 그 자체로써 하나의 완결된 전체를 이루고 있으며 지난 20년 동안 독립된 저작으로 간주되었다”(마르크스, 2010a: 73). 이 문장을 분석해보면, 『자본』 1권 전체가 아니라 그것 가운데 상당부분이 하나의 완결된 전체를 이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엔겔스가 이 문장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자본』 1권은 그 자체로써 충분히 하나의 온전한 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이런 까닭에) 20년 동안 독립된 저작으로 인정받았던 저서다”(맑스, 2019a: 45)라는 의미로 강신준판의 해석은 『자본』 1권에 대한 엔겔스의 평가를 왜곡하고 있다.

3-(2)-⑤

이와 유사한 번역상의 오류는 엔겔스의 『4권에 부쳐』에도 찾아볼 수 있다. “맑스는 이 문장을 그 형식뿐만 아니라 자료까지 위조하여 덧붙였다”(맑스, 2019a: 50)를 “마르크스는 이 문장을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materiell) 위조하여 덧붙인 것이다”(마르크스, 2010a: 78)로 번역했다. 이 부분은 뒤에 전개되는 내용에 의하면 맑스가 임의로 “자료(materiell)까지 위조하여 덧붙였다”가 올바른 번역이다.

3-(3) 문장을 번역 안 한 경우

문장 자체를 빼놓고 번역하거나 거꾸로 번역하여 이전에 전개된 내용을 완전히 왜곡하는 부분도 발견된다. 즉,

3-(3)-①

“Als Gebrauchswert ist die Leinwand ein vom Rock sinnlich verschiednes Ding, als Wert ist sie ‘Rockgleiches’ und sieht daher aus wie ein Rock. So erhält sie eine von ihrer Naturalform verschiedne Wertform. Ihr Wertsein erscheint in ihrer Gleichheit mit dem Rock wie die Schafsnatur des Christen in seiner Gleichheit mit dem Lamm Gottes”(Marx, 1984: 66).

“사용가치로서의 아마포는 ‘옷옷과 같은 것’, 따라서 옷옷과 똑같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아마포는 자신의 현물형태와는 다른 가치형태를 획득한다. 아마포의 가치존재는 아마포와 옷옷의 동질성에 따라 나타나는데, 이는 마치 기독교의 양과 같은 성질이 그와 하나님의 어린 양과 같아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마르크스, 2010a: 109)

강신준의 번역은 MEW(Marx, 1984)의 밑줄 친 부분을, “Als Gebrauchswert ist die Leinwand ‘Rockgleiches’ und sieht daher aus wie ein Rock. So erhält sie eine von ihrer Naturalform verschiedne Wertform”으로 als Wert ist sie ‘Rockgleiches’를 빼고 번역한 것인데, 이는 사용가치와 가치 사이의 관계 자체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한 올바른 번역은,

“사용가치로서의 아마포는 윷도리와는 감각적으로 다른 물건이며, 가치로서의 아마포는 ‘윷도리와 동일한 것’이며, 따라서 윷도리와 똑같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아마포는 그 현물형태와는 다른 가치형태를 가지게 된다. 가치로서의 아마포의 존재는 윷도리와 동질성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마치 그리스도 교도에게 양의 성질이 하나님의 어린 양과 같아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맑스, 2019a: 85).

3-(3)-②

앞 문장과 뒷 문장을 이어주는 매우 중요한 문장을 빼놓고 번역한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즉,

“Der Wert der Leinwand bleibt gleich groß, ob in Rock oder Kaffee oder Eisen etc. dargestellt, in zahllos verschiedenen Waren, den verschiedensten Besitzern angehörig. Das zufällige

Verhältnis zweier individueller Warenbesitzer fällt fort. Es wird offenbar, daß nicht der Austausch die Wertgröße der Ware, sondern umgekehrt die Wertgröße der Ware ihre Austauschverhältnisse reguliert”(Marx, 1984: 78).

“아마포의 가치는 옷옷이나 커피, 철 등과 같이 무수히 다른 소유자에게 속해 있는 수많은 갖가지 상품으로 표현되어도 항상 같은 크기이다. Das zufällige Verhältnis zweier individueller Warenbesitzer fällt fort. 교환이 상품의 가치크기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상품의 가치크기가 교환비율을 규제한다는 것이 뚜렷하게 드러난다”(마르크스, 2010a: 123).

즉, “두 상품소유자 간의 개인으로서 우연한 관계는 소멸된다”라는 문장이 번역되어 있지 않다.

3-(3)-③

“In einem Lande gehn jeden Tag zahlreiche, gleichzeitige und daher räumlich nebeneinander laufende einseitige Warenmetamorphosen vor, oder in andren Worten, bloße Verkäufe von der einen Seite, bloße Käufe von der andren. In ihren Preisen sind die Waren bereits bestimmten vorgestellten Geldquantis gleichgesetzt”(Marx, 1984: 188)라는 문장이 강신준판에는 아래와 같이 번역되어 있다.

“한 나라 안에서는 매일 똑같은 시각에 여러 곳에서 무수히 많은 일면적인 상품의 형태변화, 즉 구매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마르크스, 2010a: 188). 밑줄 친 부분은 번역조차 되어 있지 않고, 그 위의 문장도 완벽한 번역이 아니다. 이 문장을 올바르게 번역하면 아래와 같다.

“한 나라에서는 매일 수많은, 동시적인 따라서 공간적으로 상이한 장소에서 진행되는 일면적인 상품의 형태변화, 다른 말로 하면, 한쪽에서는 판매만이 다른 한쪽에서는 구매만이 일어나고 있다. 상품은 그들의 가격에서 이미 일정한 양의 상상적인 화폐와 동일시되어 있다”(맑스, 2019a: 175).

3-(3)-④

MEW 23쪽의 주석 100에는 맑스가 왜 존 벨러스를 인용했는지를 보여

주는 가장 중요한 문장인 “diese(Länderei und Arbeitskräfte) aber bilden den wahren Reichtum einer Nation und nicht das Geld”(Marx, 1984: 152), 즉 “그리고 한 나라의 진정한 부를 형성하는 것은 토지와 노동력이자 화폐가 아니다”(맑스, 2019a: 203, 주석 134)는 번역되어 있지 않다.

3-(3)-⑤

MEW 23권 296쪽 인용문, “Gesetzgebung ist gleich notwendig für die Vorbeugung des Todes in allen Formen, worin er vorzeitig angetan werden kann”라는 문장에서 “때이른”을 뜻하는 “vorzeitig”를 번역하지 않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역시 입법이 필요하다”(마르크스, 2010a: 394)로 번역되어 있다. 도대체 모든 형태의 죽음을 방지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입법이 존재할까? “모든 형태의 때이른 죽음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맑스, 2019a: 407)로 번역하는 것이 옳바르다.

3-(3)-⑥

MEW 23권 336쪽의 “Das Stück kostet im Durchschnitt 1 sh. oder stellt 2 Stunden gesellschaftlicher Arbeit dar”, 즉 “상품 1개는 평균적으로 1실링이 들어가며 2시간의 사회적 노동을 나타낸다”(맑스, 2019a: 464)가 번역되어 있지 않다.

3-(4) 문법상 오역의 경우

3-(4)-①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내용상으로는 문법상으로 오역한 문장도 있다.

“Nichtsdestoweniger bleibt der Tisch Holz, ein ordinäres sinnliches Ding. Aber sobald er als Ware auftritt, verwandelt er sich in ein sinnlich übersinnliches Ding”(Marx, 1984: 85).

“그럼에도 탁자는 여전히 목재이고 그저 평범한 감각적인 물건일 뿐이다.

그러나 탁자가 상품으로 나타나면 그것은 곧 감각적이면서 동시에 초감각적이기도 한 물건으로 전화한다(마르크스, 2010a: 133).

그런데 “sinnlich übersinnliches Ding”에서 sinnlich는 übersinnlich라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일 뿐이다. 강신준판은 “sinnliches gleichzeitig übersinnliches Ding”을 번역한 것이다. 그리고 내용상으로도 상품은 “감각으로는 지각할 수 없는 물건”이 옳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번역이 올바르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탁자는 여전히 목재이고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평범한 물건이다. 그러나 탁자가 상품으로 등장하자마자 감각으로는 지각할 수 없는 물건¹⁰⁾이 되어 버린다”(맑스, 2019a: 115).

3-(4)-②

2장 「교환과정」에서는 공간과 시간을 잘못 이해하여 오역한 부분이 있다.

“Der Warenaustausch beginnt, wo die Gemeinwesen enden, an den Punkten ihres Kontakts mit fremden Gemeinwesen oder Gliedern fremder Gemeinwesen”(Marx, 1984: 102).

이 문장에서 맑스가 밝히고자 하는 바는 공간적으로 한 공동체와 다른 공동체가 만나는 지점, 즉, 각 공동체의 끝부분인 접경지역에서 교환이 시작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강신준판에는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 있다.

“이러한 공동체가 종말을 고하고 하나의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 또는 다른 공동체의 성원들과 접촉되는 바로 그때 비로소 상품교환은 시작된다”(마르크스, 2010a: 153).

종말을 고한 공동체가 상품을 교환할 수는 없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번역이 올바르다.

“공동체의 맨 끝부분, 즉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나 다른 공동체 성원들과 접촉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상품교환이 시작된다”(맑스, 2019a: 137).

3-(4)-③

부정사인 “nicht”가 번역되지 않은 완전한 오역이 있다.

10) 학술대회에서 박승호 교수가 sinnlich를 빼놓고 번역했다는 지적(박승호, 2019: 151)에 대한 대답도 된다.

“Soweit wirkliche Zahlung zu verrichten, tritt es nicht als Zirkulationsmittel auf, als nur verschwindende und vermittelnde Form des Stoffwechsels, sondern als die individuelle Inkarnation der gesellschaftlichen Arbeit, selbständiges Dasein des Tauscherts, absolute Ware”(Marx, 1984: 151-152).

“그러나 실제로 지불이 이루어지는 경우 화폐는 이제 유통수단으로 등장한다. 즉 단지 물질대사를 일시적으로 매개하는 형태가 아니라 사회적 노동의 개별적 화신으로(즉 교환가치의 자립적인 현존재이자 절대적 상품으로) 등장하는 것이다”(마르크스, 2010a: 212). 이 번역 자체가 모순적이다.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 형태와 물질대사를 일시적으로 매개하는 화폐 형태로서의 유통수단을 이해하지 못한 오역이다.

“실제로 지불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화폐는 단지 일시적인 물질대사를 매개하는 형태인 유통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노동의 개별적 화신, 교환가치의 자립적인 존재이자 절대적 상품으로 등장한다”(맑스, 2019a: 203).

3-(4)-④

또 다른 문장은 주객이 바뀌어 번역되었다.

“Weil Condillac noch nicht die geringste Ahnung von der Natur des Tauscherts besitzt, ist er der passende Gewährsmann des Herrn Prof. Wilhelm Roscher für seine eignen Kinderbegriffe”(Marx, 1984: 174 주석 22).

“콩티야크는 교환가치의 성질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이 유치한 개념의 보증인으로 빌헬름 로셔를 앞세우고 있다”(마르크스, 2010a: 241 주석 22).

이 부분은 독일 이론가인 빌헬름 로셔가 콩티악을 내세워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한다는 내용으로 로셔와 콩티악은 거꾸로 놓여야 한다. 즉,

“콩티악은 교환가치의 성질에 관하여 아는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교수님인 빌헬름 로셔는 자신의 유치한 개념의 보증인으로 콩티악을 내세웠던 것이다”(맑스, 2019a: 234 주석 172).

3-(4)-⑤

노동과정의 생산물(여기에서는 밀)만을 보고는 누가 어떤 조건에서 그 과정이 수행되었는지를 알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부분에도 오역이 발견된다.

“unter welchen Bedingungen er vorgeht, ob unter der brutalen Peitsche des Sklavenaufsehers oder unter dem ängstlichen Auge des Kapitalisten, ob Cincinnatus ihn verrichtet in der Bestellung seiner paar jugera oder der Wilde, der mit einem Stein eine Bestie erlegt”(Marx, 1984: 199).

“즉 그것이 노예 감시인의 잔인한 채찍 아래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자본가의 근심 어린 시선 아래에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키키키나투스가 자신의 얼마 안 되는 토지에서 경작한 것인지 아니면 미개인이 돌로 야수를 때려잡은 것인지 알 수 없다”(마르크스, 2010a: 274). 이 번역에 따르면 미개인이 돌로 때려잡은 야수가 밀이 된다. 이에 대한 올바른 번역은 아래와 같다.

“즉 밀을 경작하는 과정이 노예감독관의 잔인한 채찍 아래서인지 자본가의 세심한 눈초리 아래서인지 알 수 없으며, 키키키나투스가 자신의 작은 경작지에서 그 과정을 수행했는지 또는 돌을 가지고 야수를 쓰러뜨리는 미개인이 그 과정을 수행했는지 알 수 없다”(맑스, 2019a: 271).

3-(4)-⑥

“Baumwolle und Spindel dienen als Lebensmittel der Spinnarbeit, aber man kann mit ihnen keine gezogenen Kanonen machen”(Marx, 1984: 203).

“면화와 방추는 방적노동의 생산수단으로 사용될 뿐, 그것을 가지고 대포를 만들 수 없다”(마르크스, 2010a: 279).

이 문장에서 “Lebensmittel”은 생산수단이 아니라 “꼭 필요한 수단”으로 번역하는 것이 아래위 내용과 문맥상 올바르다. 만약 “생산수단”이었다면 맑스가 당연히 “Produktionsmittel”로 표기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 “gezogenen”은 번역되지 않았다. 따라서 아래의 번역이 올바르다.

“면화와 방추는 실짓기 노동에서는 꼭 필요한 수단으로 쓰이지만, 그것을 늘리고 당겨서 대포를 만들 수는 없다”(맑스, 2019a: 278).

3-(4)-⑦

“Sie(Arbeit) zählt jedoch nur, soweit die zur Produktion des Gebrauchswerts verbrauchte Zeit gesellschaftlich notwendig ist”(Marx, 1984: 210).

이 문장이 강신준판에는 “그러나 노동에서 사용가치의 생산에 소비된 시간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시간으로만 계산된다”(마르크스, 2010a: 287-288)로 오역되어 있다. 이에 대한 올바른 번역은 “그러나 노동은 사용가치의 생산을 위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인 한에서만 계산된다”(맑스, 2019a: 287)가 올바른 번역이다.

3-(4)-⑧

“Wäre die alte Baumwolle noch gar nicht in den Arbeitsprozeß eingegangen, so könnte sie jetzt zu 1 sh. statt zu 6 d. wieder verkauft werden. Umgekehrt: je weniger Arbeitsprozesse sie noch durchlaufen hat, desto sichrer ist dies Resultat”(Marx, 1984: 224)라는 문장이 강신준판에는 “만약 종래의 면화가 아직 노동과정 에 투입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이제 6펜스가 아닌 1실링에 도로 판매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반대로 노동과정을 통과하는 면화의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이 결과는 더욱 확실해진다”(마르크스, 2010a: 303)라고 심각하게 오역되어 있다. 이에 대한 올바른 번역은 다음과 같다.

“이전의 면화가 아직 노동과정으로 전혀 투입되지 않았다면, 이제 6펜스 대신 1실링에 되팔 수 있다. 반대로 이전의 면화가 이미 노동과정으로 투입 되었다면, 이 면화가 통과한 노동과정의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러한 결과는 더욱 확실해진다”(맑스, 2019a: 306).

3-(4)-⑨

단어 하나를 오역해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경우도 있다.

“Man sieht, die Formel ist richtig, in der Tat nur die erste Formel, übersetzt aus dem Raum, wo die Teile des Produkts fertig nebeneinander liegen, in die Zeit, wo sie aufeinander folgen”(Marx, 1984: 237).

“물론 이 계산방식은 틀리지 않다. 실제로 그것은 다만 첫 번째 계산식을 생산물의 각 구성 부분이 완성된 형태로 나란히 놓여 있는 공간에서 그것들이 차례로 완성되어 가는 시간 순서대로 번역한 것에 불과하다”(마르크스, 2010a: 319). “공간에서 시간 순서대로 번역한다?” 올바른 번역은 다음과 같다.

“물론 이 계산방식은 옳다. 실제로 이 방식은 첫 번째 방식을 생산물의 부분들이 완성되어 나란히 놓여 있는 공간으로부터 그것들이 순차적으로 완성되어 가는 시간으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다”(맑스, 2019a: 323).

3-(4)-⑩

MEW 23권 267쪽 주석 82의 번역에서 “Tuchgewerbe”, 즉 “직물업”이 “제빵업자”(마르크스, 2010a: 357)로 번역한 것도 발견된다. MEW 23권 269쪽의 “Hofputzmanufaktur”는 “고급 여성모자 제조회사”(마르크스, 2010a: 360-361)가 아니라, “Hof(궁중)+Putz(여성복)+Manufaktur”의 합성어이자, 앞뒤의 내용으로 보아 “궁중 무도회용 파티복 제조업체”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

3-(4)-⑪

아래 문장은 자본가와 노동자가 각각 상품소유자로서 대면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의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인데, 속어의 뜻을 잘못 번역했고 과거형을 현재형으로 번역함으로써 내용이 왜곡되어 있다.

“Nach geschlossenem Handel wird entdeckt, daß er(Arbeiter) „kein freier Agent” war, daß die Zeit, wofür es ihm freisteht, seine Arbeitskraft zu verkaufen, die Zeit ist, wofür er gezwungen ist, sie zu verkaufen, daß in der Tat sein Sauger nicht losläßt, solange noch ein Muskel, eine Sehne, ein Tropfen Bluts auszubeuten”(Marx, 1984: 319-320).

“그러나 거래가 끝나고 나면 그는 자신이 결코 ‘자유로운 거래자’가 아니라는 것, 자신이 자유롭게 노동력을 팔 수 있는 시간은 노동력을 팔지 않으면 안 되도록 강제된 시간이라는 것, 그리고 사실상 그의 흡혈귀는 ‘아직 한 조각의 근육, 한 가닥의 힘줄, 한 방울의 피라도 남아 있는 한, 결코 그를

자유롭게 놓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마르크스, 2010a: 422).

그러나 이 문장에서 노동자가 알게 되는 것은 계약을 통해 그가 노동과정
에 투입된 후의 일이다. 아래의 번역이 올바르다.

“거래가 체결된 후 그는 자신이 ‘자유로운 판매자’가 아니었다는 것, 노동
력을 팔기 위해 그에게 자유롭게 주어진 시간은 노동력을 팔도록 강요된 시
간이라는 것, 그리고 사실상 그의 흡혈귀는 착취할 수 있는 한 조각의 근육,
한 가닥의 힘줄, 한 방울의 피라도 남아있는 한, 그를 결코 놓아주지 않는다
는 것을 알게 된다”(맑스, 2019a: 440).

3-(4)-⑫

MEW 23권 356쪽 첫 번째 문단에서 “Die auf Teilung der Arbeit
beruhende Kooperation”, 즉 “분업에 기초한 협업”이 “매뉴팩처”로 번역
되어 아래와 같은 앞뒤가 맞지 않는 문장이 되어 버렸다.

“매뉴팩처가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의 특징적 형태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
하게 된 것은 대략 16세기 중엽부터 1760년대 후반까지 계속된 이른바 매
뉴팩처 시대였다”(마르크스, 2010a: 466).

3-(4)-⑬

“Durch die gleichzeitige Durchführung all der verschiedenen
Arbeitsprozesse, die ein einzelner getrennt hätte ausführen
müssen”(Marx, 1984: 365, 주석 36).

“한 사람이 수행한다면 하나씩 차례대로 해야만 하는 서로 다른 온갖 노
동과정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마르크스, 2010a: 476) 라는 번역은,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수행해야만 하는 상이한 모든 노동과정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맑스, 2019a: 501)가 올바르다.

3-(4)-⑭

“Die Manufakturperiode, welche Verminderung der zur
Warenproduktion notwendigen Arbeitszeit bald als bewußtes
Prinzip ausspricht, entwickelt sporadisch auch den Gebrauch
von Maschinen, namentlich für gewisse einfache erste Prozesse,”

die massenhaft und mit großem Kraftaufwand auszuführen sind”(Marx, 1984: 368).

밑줄 친 부분이 강신준판에는 “특히 큰 동력을 사용해야 하는 대량생산과정의 간단한 초보적인 단계에서 그러하였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마르크스, 2010a: 481), “특히 거대한 힘을 사용하여 대규모로 수행되어야 할 초기과정의 단순한 작업에서 기계가 사용되었다”(맑스, 2019a: 506)이 올바른 번역이다.

3-(4)-⑮

같은 쪽의 주석 43에서 아직도 공장을 나타내는 영어단어 “mill”과 독일어 “Mühle”를 “수차”로 번역하고 있는데, “방앗간” 또는 “제분소”가 옳바르다.

3-(4)-⑯

“Es gibt verschiedene Auslagen bei einer Fabrik, welche konstant bleiben, ob die Fabrik mehr oder weniger Zeit arbeite, z.B. Rente für die Baulichkeiten, lokale und allgemeine Steuern, Feuerversicherung, Arbeitslohn für verschiedene permanente Arbeiter, Verschlechterung der Maschinerie nebst verschiedenen andern Lasten, deren Proportion zum Profit im selben Verhältnis abnimmt, wie der Umfang der Produktion zunimmt”(Marx, 1984: 428, 주석 152).

“하나의 공장에는 그 공장의 작업시간의 길이와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갖가지 비용이 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임차료, 지방세와 국세, 화재보험료, 갖가지 상용 노동자의 임금, 기계의 손상, 그밖에 생산규모의 증대에 따른 이윤율의 감소 같은 것이 있다”(마르크스, 2010a: 549).

마지막 문장이 심각한 오역으로 내용 전체를 왜곡하고 있다. 비용은 작업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지만, 이윤에 대한 비용의 비율은 생산규모에 반비례하여 변한다는 내용을 전혀 다르게 번역했다. 올바른 번역은 다음과 같다.

“어떤 공장의 작업시간이 길든 짧든 간에,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비용이 있다. 예를 들어 공장건물세, 지방세와 국세, 화재보험료,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기계장치의 손상 등과 기타 여러 가지 재정적 부담이 있는데, 이윤에 대한 이 비용의 비율은 생산규모가 증가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감소한다”(맑스, 2019b: 57).

3-(4)-⑰

“Allerdings, sofern diese Weber das Zeitliche segneten, bereitete ihnen die Maschine nur “zeitliche Mißstände”(Marx, 1984: 455).

숙어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한 오역이 발견되는 데, 문장 내용만 파악하고 있어도 올바르게 번역할 수 있는 경우이다.

“물론 이들 직공이 일시적인 삶에 이별을 고한다면, 기계는 그들에게 그저 ‘일시적인 고통’만을 주었을 뿐이다”(마르크스, 2010a: 580).

“아무렴, 이 직공들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에도, 기계는 그들에게 ‘일시적인 고통’만을 주었을 뿐이다”(맑스, 2019b: 92).

3-(4)-⑱

맑스는 “기계장치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게 한다”는 정치경제학 이론을 비판하는데, 강신준 교수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반대로 번역하였다.

“Ja, die politische Ökonomie jubelt sich aus in dem abscheulichen Theorem, abscheulich für jeden “Philanthropen”, der an die ewige Naturnotwendigkeit der kapitalistischen Produktionsweise glaubt, daß selbst die bereits auf Maschinenbetrieb begründete Fabrik, nach bestimmter Periode des Wachstums, nach kürzrer oder längerer “Übergangszeit”, mehr Arbeiter abplackt, als sie ursprünglich aufs Pflaster warf”(Marx, 1984: 471).

“그렇다, 경제학은 실제로 끔찍한-특히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영원한 자연 필연성을 믿는 모든 ‘박애주의자들’에게 끔찍한-이론을 회심의 카드로 내세우면서 환호하는데, 그 이론이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벌써 기계제 경영이 자리를 잡은 공장에서도 기계제는 일정한 성장기, 즉 어느 정도의 ‘과도

기'를 거치고 나면 그것이 처음 도입될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노동자를 거리로 쫓아낸다는 것이다"(마르크스, 2010a: 601).

기계장치가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한다는 주장을 비판한 맑스를 철저히 왜곡하고 있다. 올바른 번역은 다음과 같다.

“그렇다, 정치경제학은 이미 기계제 생산에 기초하고 있는 공장에서조차 일정한 성장기와 과도기를 거친 후에는 그것이 처음에 해고한 노동자보다 더 많은 노동자를 흡수시킨다는(해고노동자보다 신규 고용노동자가 더 많다는-옳긴이),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이 필연적으로 영원히 지속된다고 믿는 ‘박애주의자’에게조차 혐오스러운 이론을 내세우면서 환호하고 있다”(맑스, 2019b: 115).

3-(4)-⑩

원료의 품질이 생산량과 개수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부분에서도 오류가 발견된다.

“Die kürzre Fiber der Suratbaumwolle. ihre schmutzige Beschaffenheit, *die größte Brüchigkeit der Fäden*, der Ersatz des Mehls durch alle Art schwerer Ingredienzien beim Schlichten des Kettengarns usw. verminderten die Geschwindigkeit der Maschinerie oder die Zahl der Webstühle, die ein Weber überwachen konnte, vermehrten die Arbeit mit den Irrtümern der Maschine und beschränkten mit der Produktenmasse den Stücklohn”(Marx, 1984: 480).

“섬유가 짧고 먼지가 많은 수라트 면화를 사용하고 낱실에 먹이는 풀을 곡분 대신 더 무거운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기계의 속도는 떨어졌고, 한 사람이 사용하는 직기 수가 증가함으로써 기계의 고장을 수리하는 노동은 증가하고 생산량과 그것에 연관된 성과급 임금은 감소하였다”(마르크스, 2010a: 611).

앞의 밑줄 친 부분은 번역되지 않았고, 감소는 증가로 잘못 번역되었다.

“섬유가 짧고 더러운 수라트 면화의 사용, 섬유가 잘 끊어지고, 낱실에 풀을 먹이는 데 곡식가루 대신 더 무거운 종류의 성분을 사용함으로써 기계장치의 속도가 줄어들고 한 직공이 감시하는 베틀의 수가 감소했으며, 기계의

오류를 바로잡는 작업이 증가했기 때문에 생산량과 더불어 개수임금도 줄어들었다”(맑스, 2019b: 126).

3-(4)-㉔

“Produktion eines bestimmten Quantums Ware oder eines bezweckten Nutzeffekte in gegebenen Zeitraum”(Marx, 1984: 499). “목적한 효율”로 번역되어야 할 밑줄 친 부분이 “사용가치”(마르크스, 2010a: 635)로 오역되어 있다.

IV. 글을 마치며

이상에서 자본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개념에 대한 새로운 번역방식을 제안하고 강신준판의 번역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존 독일어 번역판인 강신준판은 매우 쉬운 독일어를 오역하는 등 번역수준이 일관되지 않고 부분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번역하면서 집중력을 잃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강신준판을 읽어 나가면서 느낀 점은 부분에 따라 문법적으로나 내용상으로 그 번역수준이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까닭에 여러 명이 나누어 번역했다는 의혹이다.¹¹⁾

번역은 새로운 창조라고 말하지만, 사회과학 서적의 번역은 일단 원전의 내용을 독자에게 정확하고 쉽게 전달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 본 번역에 대한 가차 없는 비판과 번역상의 문제에 대한 비판적인 제안을 해주길 바란다.

투고 일자: 2019. 10. 2. 심사 및 수정 일자: 2019. 10. 31. 게재 확정 일자: 2019. 10. 31.

11) 이 의혹에 대한 해답은 장시복(2016: 56-57)과 류동민(2016: 27-28)을 참조하기 바란다.

◆ 참고문헌 ◆

- 강신준 (2011), “Das Kapital의 번역과 우리나라 마르크스 경제학의 현재와 미래,”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8권 제1호.
- Shinjun Kang (2011), “The Translation of Marx’s Das Kapital into Korean and Its Meaning on Korean Marxist Political Economy,” *Marxism 21*, 8(1).
- 김공희 (2010), “Das Kapital의 성격과 그 번역에 대한 몇 가지 이슈,”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7권 제2호.
- Gonghoae Kim (2010), “Some Issues on the Nature of Das Kapital and Its Translation,” *Marxism 21*, 7(2).
- 박승호 (2019), “마르크스 ‘자본’ 독일어판 출판에 대한 논평 3, 한국사회경제학회 2019 봄 학술대회.
- Seongho Park (2019), “Commentaries on the publication of the German version of Marx Capital, 3.”
- 류동민 (2016), “자본론 번역의 내면 풍경,”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3권 제1호.
- Dongmin Ryu (2016), “The Korean Translation of Das Kapital: Its Interior Landscape,” *Marxism 21*, 13(1).
- 류동민 (2019), “마르크스 ‘자본’ 독일어판 출판에 대한 논평 1, 한국사회경제학회 2019 봄 학술대회.
- Dongmin Ryu (2019), “Commentaries on the publication of the German version of Marx Capital, 1.”
- 이병창 (2019), 『독일 이데올로기 1권』, 먼빛으로.
- Byungchang Lee (2019), *The German Ideology*.
- 장시복 (2016), “한국에서 자본론의 수용과 번역, 일제강점기-1980년대,”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3권 제1호.
- Sibok Jang (2016), “The Acceptance and Translation of Das Kapital in Korea,” *Marxism 21*, 13(1).
- 칼 맑스, 황선길 옮김 (2019a), 『자본 1-상』, 라움.
- 칼 맑스, 황선길 옮김 (2019b), 『자본 1-하』, 라움.
- 카를 마르크스, 강신준 옮김 (2010a), 『자본 1-1: 경제학 비판』, 길.
- 카를 마르크스, 강신준 옮김 (2010b), 『자본 1-2: 경제학 비판』, 길.
- 카를 마르크스, 김수행 옮김 (2015a), 『자본 1-상: 정치경제학 비판』, 비봉출판사.

카를 마르크스, 김수행 옮김 (2015b), 『자본 1-하: 정치경제학 비판』, 비봉출판사.

Marx, K. (1984), *Das Kapital: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Erster Band. MEW 23, Dietz Verlag, Berlin.

Marx, K. (1990), Translated by Ben Fowkes, *Capital: A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Volume One, Penguin Books.

Marx, K. and F. Engels (1986), *Die Deutsche Ideologie*, MEW 3.

Translation Review of K. Marx's - "The Capital - A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Volume One"

Sun-Gil Hwang*

Abstract

This paper is a translation review of the first volume of "Das Kapital" and includes a limited anti-criticism of what was criticized at the Conference of the Social Economic Society in spring. In the paper, first, it proposes a new way of expression method to several concepts in the translation of "Das Kapital". Second, Professor Kang Shin-joon's translation is pointed out by classifying it according to the problems.

KRF Classification : B030106

Key Words : Marx, The Capital, Method of Translation of "The Capital", Kang Shin-joon

* Affiliate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College of Law, Politics & Public Affair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e-mail: serai82@hanmail.net